

사 램 사 랑

회원통신 제52호(99/4/23)

인 권 운 동 사 랑 방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Korea
(110-522) 서울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대표전화: 741-5363, 팩스:741-5364 통신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인권사랑(나우누리)
E-mail; rights@chollian.net Internet Web; <http://www.iworld.net/~rights/>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등
17개 34명의 인권활동가들이
정부의 인권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7일간 단식농성을
전개하는 모습

7일간의 단식 농성을 마치며

유혜정(자유권위원회)

하늘이 너무 맑았다. “정부의 인권법안 철회! 재논의 촉구”라고 쓰여진 플래카드를 명동성당에 내걸고 7일간의 단식농성에 돌입하기엔 4월의 하늘은 시리도록 맑기만 했다.

후다닥. 별다른 고민도 하지 못한채, 인권법안 때문에 당분간 집에 들어오지 못할 것 같다는 짧은 설명으로 부모님께 일주일간의 인사를 대신한채, 당일 아침이 되어서야 주섬주섬 짐을 꾸려 명동성당으로 향했다.

큰 가방 하나씩을 짊어지고 명동성당으로 모여든 사람들. ‘이제 일주일동안 이곳에서 저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하는구나’란 생각에 느껴진 낯설음과 ‘우리가 과연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란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 진행된 기자회견.

기자회견이 끝나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무실로 돌아가고 결국 농성단만이 명동성당에 남겨졌다. 사안의 긴급성 때문이었을까? 많이 준비되지 못한채 시작된 농성이었기에 첫날부터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우선 천막을 세우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는데, 결국 농성 3일째날 비바람을 견디지 못해 반은 무너지고만 천막이었지만, 양군모 형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밤이 되도 세우지 못했을 천막이 세워졌고 우리는 천막안에 짐을 풀 수 있었다. 인사를 하며 얼굴을 익히고 익숙하지 않은 배고픔을 느끼며 우리는 그렇게 천막에서의 단식 첫날을 보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을때, 준비되었던 것보다 준비해야할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밖에서의 도움을 기다리기보다 자체적으로 해야할 일들이 더 많음을 느끼며, 우리는 농성단의 대장을 뽑고 규율을 세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선전물을 만들고 명동사거리에 나가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아침 선전전을하고 오후엔 명동성당 입구 계단에 앉아 침묵시위를 시작했다. 온종일 따가운 햇볕아래 앉아있어 그랬던지, 민가협이 남규선 총무의 표현을 빌리자면 “농성하던 사람들의 머리가 다 먹을 것으로 보였을 정도”였다고하는 허기때문이었는지 사람들의 얼굴에 힘든 표정이

역력히 묻어나는 하루였다. 하지만 힘겨운 기색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셋째날이 돼 서로의 얼굴을 익혔을때, 우리는 비오는 오전시간동안 서로가 왜 운동의 길에 서 있는지를 이야기하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우리의 투쟁에 함께 하겠노라며 찾아오는 사람들을 발걸음이 많아지고 있음에 ‘우리의 농성이 결코 헛 고생은 아니구나’하는 뿌듯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점차 농성장에도 조직다운 틀이 생기기 시작했고 우리는 오전 선전전과 교육, 오후 연좌시위와 교육이라는 일과를 별무리없이 지켜가면서 농성장에서의 날들을 보냈다. 비록 5일째가 되는 날엔 한명의 농성자가 병원으로 실려가는 일도 생기고 모두들 많이 힘들어했지만, 여기저기서 격려와 지지의 메시지가 날아들고 “이제 인권법은 물건너간 싸움”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이라는 마음으로 정부의 인권법안 반대투쟁을 결의했을때, 우리는 우리의 투쟁이 몸이 힘든 싸움이었을지언정 결코 헛되지 않은 투쟁이라는 것을 알게됐다. 또한 이러한 투쟁을 발판으로 정부가 만들려고하는 허깨비 인권법안을 저지하고 서민의 아픔과 눈물을 닦여주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참다운 세상을 만들어나갈 수 있게하는 인권법안이 만들어지기를 바랐다.

농성장에서의 마지막 밤, 인권법안에 대한 고민도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일도 서로 달랐던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각자가 서있는 위치에서의 인권법안 철회투쟁을 해나갈 것을 다시한번 결의하며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길위에서 든든한 동지로 다시만날 것을 약속했다.

농성을 마친지 어느새 10일. 세상은 언제 단식 농성을 했냐는듯이 고요하기만하고 농성장을 찾아와 투쟁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다짐도 희미해진듯해 마음이 찻찻하기만하다. 하지만 나는, 그리고 농성에 참가하며 7일간의 투쟁을 함께했던 사람들은 잊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지켜볼 것이다. 비록 짧은 농성이었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했던 다짐들을 우리의 활동속에서 얼마나 구현해가고 있는지를, 그리고 우리와 함께 투쟁을 결의했던 사람들이 이 투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들... 다시는 인권활동가들이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날이 오지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정부의 인권법안 철회!

사 / 업 / 보 / 고

(99년 3월 넷째 주부터 4월 넷째 주까지)

국가인권위에 대한 관심 높여

명동 단식농성 4명 결연한 의지 참가

인권활동가들의 연합단식농성이 4월 13일 종료되었습니다. '인권법안 철회와 재논의'를 요구하며 7일부터 진행된 1주일간의 단식농성을 통해 그간 국가인권위원회 문제에 무관심했던 많은 단체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방에서는 서대표님을 비롯, 최은아 총무, 유해정, 유점렬 상임활동가 등 4명이 첫날부터 1주일간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농성 대열을 이끌었습니다. 34명의 인권활동가들이라고 하지만, 절반 정도의 활동가들은 단식농성에 제대로 결합하지 못한 데 비해서 사랑방의 활동가들은 전혀 이탈없이 참가했습니다. 또한, 사무국 성원들의 끊임없는 지원과 자원활동자들의 헌신적인 도움 등은 다른 단체들의 부러움을 사는 부분이었습니다.

최초의 인권활동가들의 연합단식농성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인권법안의 문제점을 국내외에 널리 인식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들에게도 정부의 인권법안의 문제점이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연합단식농성이 관심권에서 멀어지던 국가인권위원회 사안을 다시 살려내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연합단식농성단은 매일 아침 오전 8시에 기상하여 오전 선전전, 강연, 오후 연좌농성,

집회, 평가 등을 매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각 단체의 사정에 대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인권운동에 대한 인식의 공유 등을 확보한 것은 이후 연대를 위한 중요한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단식농성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대한변협의 토론회에서 정부안에 대한 반대 기류를 형성하게 하였고, 공추위를 확대,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공추위는 단식농성의 성과를 이어 미가입 조직들을 대거 참가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에서 정부 인권법안 상정을 저지하고, 법무부장관 퇴진 운동 등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한편, EBS 교육방송에서는 지난 4월 17일 '난상토론' 프로그램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주제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 토론에는 공추위 측 토론자로 곽노현 교수, 차지훈 변호사, 배경내 인권교육실장이 참석하였고, 정부측 토론자로는 권성동 법무부 인권과 검사 등 3명이 참석하여 말 그대로 난상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날 토론의 결과로 시청자들이 정부측 주장보다는 민간측 주장에 훨씬 많은 지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사업 주춤, 물밑작업중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투쟁기구 구성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인권법 철회 단식농성으로 국가보안법 문제 해결을 위한 워크샵도 유보되었습니다. 또, 전국연합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국보철폐 연대회의도 해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의 국가보안법 투쟁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한 논의들이 한동안 물밑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의 상황으로는 당장 어떤 사업을 하

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해의 정세 속에서 국가보안법을 실질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많은 단체들이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이 마무리되는 시점 직후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제캠페인 팀은 중단된 논의를 다시 갖기로 하고 4월 24일 회의를 갖습니다. 캠페인팀은 4월말까지 '김대중 정부 1년 국가보안법 운영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사랑방에서 진행중인 국가보안법 철폐 대학생 실천단은 몇 개의 학생 단위들이 모여서 차분히 활동을 준비중입니다. 이 실천단은 오는 5월부터 대중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대학 사회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의를 불붙일 다양한 계획을 마련중입니다.

홍익대 앞 불길 캠페인, 일시 연행

한총련 대의원대회 장소로 예정된 홍익대에 4월 14일부터 경찰병력이 철동같이 출입자들을 막았습니다. 17일로 예정되었던 한총련 대의원대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경찰이 원천봉쇄한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사랑방에서는 홍익대학교에 가서 불심검문에 대한 교양작업을 벌였고, 학생들을 조직, 학교 앞에서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15일에는 홍익대 앞에서 학생 3명과 함께 정재욱 캠페인 팀장 등 4명이 마포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일제 검문을 하는 경찰에 항의하고 사진을 찍는 것을 두고, 초상권을 침해한 현행범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연행한 것입니다. 여기에 맞서서 경찰서 안에서도 계속 항의를 하고, 사무실에서도 항의

전화를 하고, 김도형 변호사도 경찰로 항의 전화하는 통에 경찰은 1시간 30분만에 모두 풀어주고 말았습니다.

사랑방에서는 한총련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서울 시내 여러 학교에서 진행된 경찰의 불법 검문 사례를 모으고 있으며, 마포경찰서의 불법연행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하기로 하고 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사동에서는 4월 15일 대학로에서 자체적으로 불심검문 거부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제네바에서 이주영씨 맹활약

유엔인권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이주영씨의 활약이 눈부십니다. 제네바 현지에서 있는 팍스로마나의 이성훈 사무총장의 도움을 받아가며, 민변의 장경주씨와 함께 현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등의 한국 상황을 알리는 일에 열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밤늦도록 열리는 회의장을 쫓아다니면서 회의의 진행을 익히고 있으며, 간간히 발언 기회도 얻어 발언하기도 합니다. 이런 활동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정부의 인권법안에 대한 비판여론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다양한 NGO들과의 만남, 각종 논의 의제들에 대한 정보 수집, 각 나라 대표들에 대한 로비 등 유엔 인권위원회의 전반적인 부분을 훌륭히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정형근 의원이 유엔 인권위원회에 참가하게 되자, 그의 전력을 회의에 참가한 각국 대표들에게 알림으로써 정형근 의원이 발언하지도 못하고 매우 위축된 분위기 가운데 있다가 오게 만 들기도 했습니다.

이주영씨는 오는 5월 네덜란드 헤이그에

서 열리는 평화회의에도 참가하고, 6월에는 G7 정상회담에도 민간단체들과 참가하게 됩니다. 이주영씨는 오는 6월 하순 귀국하게 됩니다.

□ 지난 3월 27,8일 사무국과 인사동은 북한산 수구산장으로 1박2일의 MT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MT에서는 상지대 정대화 교수로부터 정치정세에 대한 강연을 들었으며, 올해 사랑방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재확인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 제3회 인권영화제 대표적 상영작인 <칠레전투>를 드디어 5월초부터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쇼아> 판매 방식으로 보급하게 됩니다. 총 3편의 <칠레전투>를 각 편당 3만원씩 받고 보급합니다. 또한, 5월 15일 전후하여 상영회도 개최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양지마을 민사소송을 5월 첫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1차 민사소송에는 18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지마을에서 97년에 방화사건을 일으켰던 박종문씨가 출옥하여 사랑방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노재중 전 이사장 등 양지마을 관계자들에게 혹독한 폭행과 피해를 당하였던 대표적인 인물이라 이 사건을 중심으로 추가 형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송은 민변의 이덕우 변호사가 힘써 주고 계십니다.

□ 국정원에 사랑방 대표인 서준식 선생님을 다시 '간첩'으로 매도하였습니다. <한겨레 21> 4월 22일자 표지 기사에서 국정원은 탈북자들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서대표를 끌러들인 것입니다. 한편, 국정원은 <한겨레 21>의 주장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법적인 대응을 벌일 것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 서대표님이 국가인권기구 공추위 관련

한 일로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권활동가 연합단식농성을 사실상 지휘하고, 또 매일처럼 원로와 각 단체 대표자들에게 연락하고 사람 만나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 사무국장은 3월 25,6일 속초 동우전문대에서 열린 김용갑 열사 추모제에서 한국 인권운동에 대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3월 26일에는 고양청년회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해, 4월 21일에는 서울대에서 한국 인권운동의 과제에 대해서 강연을 했고, 4월 23일에는 유네스코 청년원에서 주최한 국제 자원활동자 워크샵에서 인권분야의 자원활동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또, 4월 9일에는 중앙일보와 한백연구재단에서 주최하는 밀레니엄 대토론 '차별없는 사회로 가는 길'에 참가했습니다.

□ 배경내 인권교육실장이 공추위 사업으로 바쁜 가운데서도 4월 20일에는 전교조 사회교과모임에서 인권교육에 대해 강연을 했습니다. 또, 4월 24일에는 민중교육연구소에서 개최하는 '인권교육의 활성화 방안' 주제의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합니다.

□ 차병직 변호사님이 주선하여 모처에서 중고 컴퓨터 4대를 받아주셨습니다. 이로써 컴퓨터 부족현상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박찬운 변호사님이 이사하면서 책장 3개를 기증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컴퓨터는 부족분을 해결했으나, 회의용 의자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자가 부족하여 회의 때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는 앉을 수조차 없는 상황이 종종 벌어집니다. 회의용 의자를 기증하실 분은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료> 인권법안 철회를 위한 단식농성 해단식

우리의 결의

찬란한 한국 인권운동의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34명의 인권활동가들은 정치인들 사이의 밀실홍정으로 더럽혀져 만신창이가 된 이른바 '인권법'안의 철회와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민주적 논의구조 구성을 요구하면서 7일 동안 단식투쟁을 전개했다. 이는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인권피해자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삼는 인권활동가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너무도 정당한 투쟁이었다. 우리는 우리가 겪은 이 고난의 7일간에 무한한 긍지를 느낀다. 이제 우리의 이 작은 한 단계 투쟁을 매듭지으면서 이 투쟁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1.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지난 3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인권법'안의 철회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여 나갈 것이며, 우선 이 법안의 국회 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일치단결하여 힘을 모을 것이다.

2.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온 국민의 희망이야 할 국가인권기구를 집요하게 왜곡함으로써 자신의 기득권을 확보하려는 법무부 검찰세력의 기도를 분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이제 전직 공안검사로서의 본색을 거리낌없이 드러낸 법무부 박상천 장관을 '인권의 이름'을 도용하는 인권의 적'으로 규정하여 본격적으로 그의 퇴진운동에 나설 것이다.

3.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어떠한 시련에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모든 인권피해자들의 아픔을 실제로 해결해줄 수 있는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할 것이다. 또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논의의 대중적 확산에 힘쓰고 동시에 정의로운 국제여론에 계속 호소해 나갈 것이다.

4.

우리 인권활동가들은 만일 물지각한 정치인들이 현 '인권법'안의 국회 상정·통과를 강행함으로써 끝내 사이비 국가인권기구가 탄생할 경우 이런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어떠한 협조도 거부할 것이며, 현 정권을 반인권적 정권으로 규정하여 타도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1999년 4월 13일, 단식농성투쟁을 마치며

18개 단체 인권활동가
연합단식농성단 일동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김대중 대통령님.

따사로운 봄 햇살 아래 개나리꽃 활짝 피고 거리를 오가는 젊은이들의 옷차림도 경쾌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우리는 무거운 겨울 옷을 걸치며 7일 동안의 단식투쟁을 감행했습니다. 정치인들의 밀실홍정 끝에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인권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던 바로 그 날 이후 우리는 분노와 실망을 되씹으며 단식투쟁을 결심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쓸모 있는 국가인권기구의 실현을 바라던 우리의 노력이 정치인들의 책략에 허망하게도 유린당한 그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분명 자신을 희생하는 투쟁 뿐이었습니다.

실망감에 휩싸이면서, 가슴 밑바닥에서 치밀어오는 분노를 느끼면서, 우리는 대통령께서 그 어려운 선거에 승리하셨던 감동적인 날을 떠올리곤 합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던 그 약속은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군사정권에 의하여 처참한 고난을 받은 분의 입에서 울려 나왔기에 그저 '말'이 아닌 '약속'일 수가 있었습니다. "인권이 존

중되는 사회”는 인권 부재의 어두운 시대를 오랫동안 겪어야 했던 우리 국민에게 바로 희망 그 자체였으며, 인권 피해자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 인권활동가들에게 새 시대의 예감 바로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의 감동은 환상이었다고, 그 날의 약속은 거짓이었다고, 그날의 희망은 부질없는 꿈이었다고, 그 날의 예감은 착각이었다고….

국가인권기구 설립논의가 희망의 색깔에서 실망의 색깔로, 실망의 색깔에서 다시 분노의 색깔로 변해온 지난 1년간은 바로 당신에 대한 우리의 희망이 실망으로 변하고 그리고 다시 분노로 변하는 과정에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공안점사 출신인 법무부 장관의 온갖 모략과 억지와 고집 속에서 빛어진 이른바 ‘인권법’안이 바로 당신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우리는 늠름했던 대통령께서 실은 무기력하고도 무능한 분이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 대하여 처음으로 치미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진정 믿고 계십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그 허약하고 비뚤어진 이른바 ‘국민인권위원회’가 실제로 수많은 억울한 이들의 눈물을 씻어주고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진정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제 대통령께서 이 사회를 인권대통령답게 ‘개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 버린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인권을 사랑하는 우리 젊은 인권활동가들이 이제 당신을 ‘인권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대통령님.

언젠가 당신이 다른 아무 것도 아닌 “인권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감히 말씀 드립니다. 지금 당신은 분명히 ‘인권대통령’으로

남을 자격이 없습니다. 인권개혁의 완강한 걸림돌 박상천 법무장관을 두둔하는 당신은 ‘인권대통령’으로 남을 자격이 없으며, 독립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할 강한 의지가 없는 당신은 ‘인권대통령’으로 남을 자격이 없습니다.

대통령님! 박상천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십시오. 그 악독했던 군사정권 시절의 법무부장관들과 별반 차별성도 없는 박상천 법무부 장관을 지금이라도 해임하십시오. 그리고 지난 3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인권법’안을 누구보다도 먼저 당신 스스로의 손으로 철회하십시오. 그리하여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인권활동가들로 하여금 당신을 ‘인권대통령’이라고 부르게 해주십시오.

김대중 대통령님.

우리 젊은 인권활동가들은 인권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인권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우리 젊은 인권활동가들은 우리 사회의 수많은 인권 피해자들과 함께 숨을 쉽니다. 그 수많은 피해자들은 우리와 함께 숨을 쉽니다. 우리 젊은 인권활동가들은 이 땅의 인권운동의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 전통에서 힘과 용기를 길어 올립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힘과 용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올바른 국가인권기구를 만들기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올바른 국가인권기구를 세우고야 말 것입니다.

1999년 4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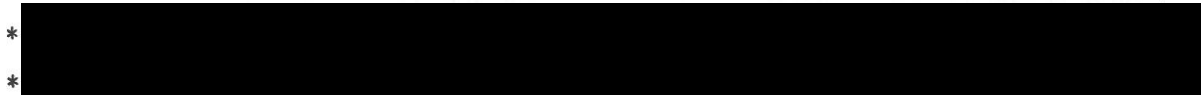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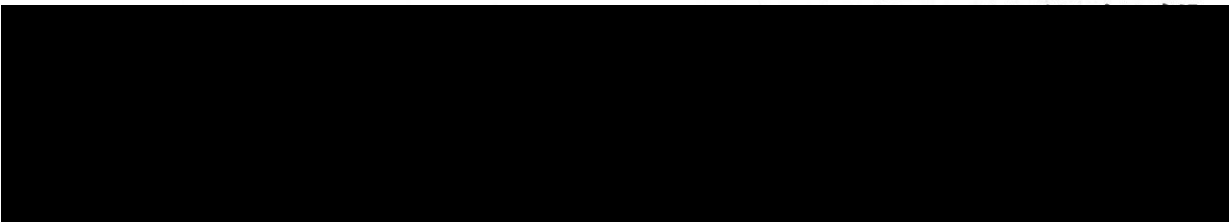
명동성당에서 단식투쟁을 마치며
18개 단체 인권활동가
연합단식농성단 일동

99년 3월 재정보고
(99년 3월 16일 - 4월 15일)

전기이월: -12,820,914 원

| 수 입 | | 지 출 | |
|-----------------|---------------------|--------------|-------------------|
| 회비 | 2,077,700 | 활동비 | 3,710,000 |
| 구독료 | 2,899,900 | 우편·발송비 | 464,680 |
| 사업수익 | 1,663,940 | 사무비품비 | 373,090 |
| - 자료 복사·판매 | 548,140 | 사무실유지비 | 1,103,500 |
| - 강연·교육·원고 | 420,000 | 간행물구독·자료구입비 | 157,000 |
| - 『인권교육길잡이』 판매 | 365,200 | 통신·전화비 | 985,700 |
| - 인권시평 배급료 | 226,700 | 사무기기 수리·유지비 | 175,000 |
| - 『합본 11호』 판매 | 89,900 | 복사·제본비 | 194,400 |
| - 불심검문 자료·카드 판매 | 14,000 | 식비 | 198,350 |
| 인권교육길잡이 인세 | 1,000,000 | 출장비 | 27,500 |
| 후원금 | 30,000 | 모꼬지 | 399,350 |
| 기타 | 87,806 | 연대사업비 | 100,000 |
| | | 기타 | 46,250 |
| 수입총액: | 7,759,346원 | 지출총액: | 7,934,820원 |
| 최종결산: | -12,996,388원 | | |

<3월 자문·운영위원 회비>(가나다 순)



* 여러 모로 저희들을 배려해주시고 신경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좌 안내>



지 로: 7618848

예금주: 서준식